

기억하셔야 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이의제기를 안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듯 국어라는 과목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 가능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오답이 오답인 이유를 납득시키기 위해선 틀린 선지를 정말 명백히 틀리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틀린 선지는 눈에 띄 정도로 <지문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거나>, <지문에 전혀 꺾덕지가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한 편, 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압축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지 판단/분류의 기준]

선지가 눈에 띄 정도로

㉠ 제시문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할수록
 ㉡ **제시문에 꺾덕지조차 없는 이야기**를 할수록

⇓

그 선지는 X에 가까워지고
/
아닐수록 그 선지는 O에 가까워진다.

여기서 **가까워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럼에도 여러분은 심리적으로 애매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위의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국어에서 애매함을 완전히 지워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시문이란 반대인가..? 아닌가..? 꺾덕지가 있나...? 없나...?'하면서 선지에 O나 X를 과감하게 표시하지 못하는 거죠.

허나 O와 X가 뜻하는 바는 <100% 맞는 선지>, <100% 틀린 선지>가 아닙니다.

그냥 O 표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를, X 표시는 '이건 틀린 말 같은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확실하지 않아도 조금 더 과감하게 OX를 치셔도 좋습니다. △는 정말 정~말 애매할 때 치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 O 표시하기
 확실하진 않지만, 이건 틀린 말 같은데...? ⇒ X 표시하기
 진짜로 모르겠는데...? ⇒ △ 표시하기

물론 이렇게 모호하게 분류하는 게 더 국어를 애매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는 2차 선지 판단 단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해보기

연습 문제에 적용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문의 핵심 내용을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만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휩싸고 둥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

핵심 내용 정리 :

1.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① '님'은 '나'가 복수하고 싶은 원수일 수 있겠군.
- ② '님'은 '나'의 회사 동료일 수 있겠군.
- ③ '님'은 '나'가 일제 강점기에 빼앗긴 조국일 수 있겠군.
- ④ '님'은 '나'가 종교인으로서 지향하는 진리일 수 있겠군.
- ⑤ '님'은 '나'가 사랑하는 연인일 수 있겠군.